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책 소개

조선 궁궐에서 일본인들이 중전을 해친 뒤, 곧 의병들이 봉기한다는 소식을 들은 희순은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의병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집안을 돌보고 어린 아들을 키워야 했기에 따라나서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희순은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지고 돌아가는 의병대를 보살펴 주었어요.

의병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희순은 의병가를 만들었어요. 희순이 지은 의병가가 마을에 퍼지자 의병들은 힘을 냈고, 아낙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도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 갔지요. 하지만 일본군은 계속해서 조선을 압박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희순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과연 희순은 어떻게 일제에 맞섰을까요?

의병가를 짓고 안사람 의병대를 만들어 항일 의병 운동에 힘썼던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역사의 책갈피에 숨어 있는 옛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 인물 도서관' 시리즈 여섯 번째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은 조선에 쳐들어오려는 일본에 맞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나던 시기, 의병가를 지어 의병들을 격려하고, 나라 구하는 데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며 여자들을 설득해 의병대를 만들었던 윤희순의 이야기를 담은 인물·역사 동화입니다. 희순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왜 의병가를 떠올렸는지, 어떻게 의병장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따라가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윤희순의 지혜와 용기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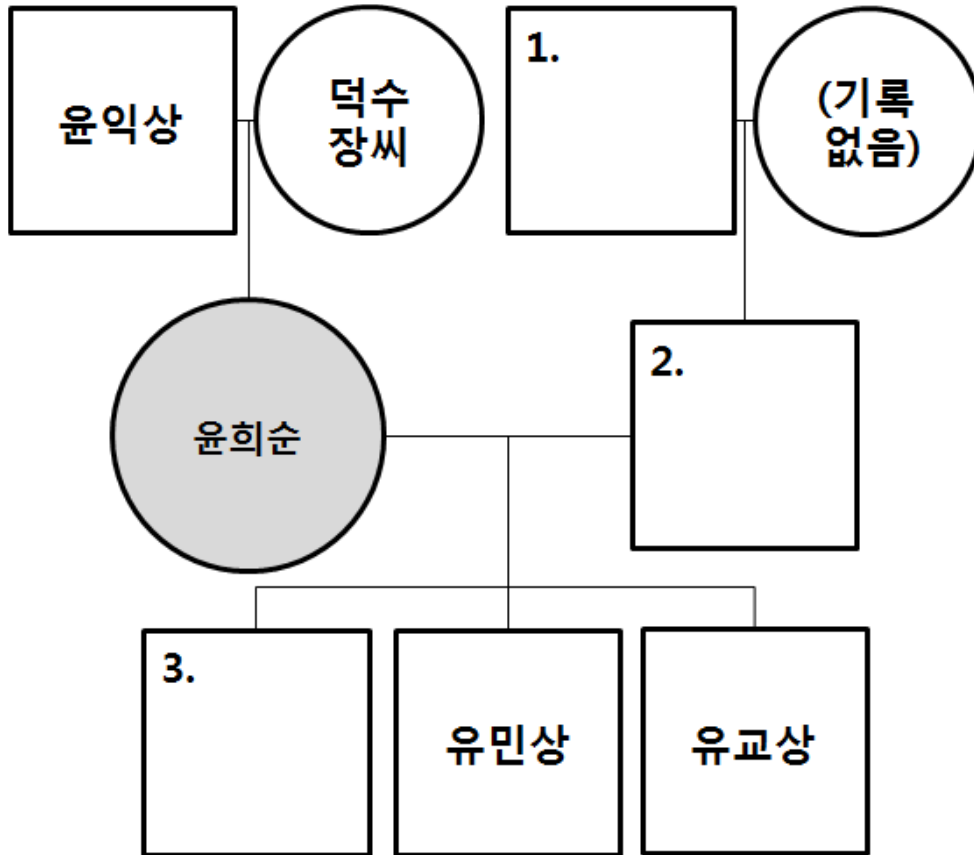
5-2	사회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1)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작품 키워드

#의병가 #안사람_의병대 #항일_의병_운동 #독립운동 #의병장 #독립운동가 #윤희순

 <p>독서단원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독서 전</p>	(인물 관계도)	초등학교
	글 : 이진미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책을 읽기 전에 조선 시대의 인물을 조사해서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인물 설명]

1. 윤희순의 시아버지예요. 1895년, 조선 궁궐에서 중전이 일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자 의병에 나섰지요. 관군이 의병을 공격하고 해산하도록 꼬드기자 <고병정가사>를 지어 관군을 꾸짖고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웠어요.
2. 윤희순의 남편이에요. 1876년, 윤희순과 혼인했지요. 아버지를 따라 의병이 된 후 의병 활동을 계속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1915년, 세상을 떠났어요.
3. 윤희순의 맏아들이예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의병이 되었고, 동지들을 모아 조선독립단을 만들었지요. 1935년, 무순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독서단원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날말 퍼즐)
-독서 중

글 : 이진미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_____ 초등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 번
 이름 : _____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을 읽고, 다음 날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③	④				⑦		⑧
②					⑤	⑥			
			⑪				⑨		
⑩									
					⑭				⑮
								⑮	
			⑬						
⑫									

가로

- ② 토목이나 건축 등의 공사. ‘경복궁 ○○이(가) 언제나 끝나...’
- ③ 처녀가 시집을 간다는 뜻으로, 집을 떠난다는 뜻의 단어와 발음이 같음.
- ⑤ 가족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
- ⑦ 대를 쪼개어 가늘게 깎은 조각을 엮어 만든 것. ‘○○○을(를) 쓰고 등에는 붓짐을 짚어진 두 사내’
- ⑨ 여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과(와) 활옷으로 단장한 신부 희순’
- ⑩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곁에 천 등을 썩은 등. ‘어둠을 밝히려고 ○○을(를) 든 이웃과 친척들’
- ⑪ 옛날 벼슬아치들의 제복으로,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입음. ‘푸른 ○○’
- ⑫ 유교의 옛 가르침에서 일곱 살만 되면 남녀가 한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야 함을 이르는 말.
- ⑮ 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을(를) 가득 메운 선비들’

세로

- ① 나라를 배신한 사람을 무찌르자고 임금에게 올리던 글. ‘○○○을(를) 올리며 왕후 폐위 조칙에 반대했던 전국의 유림들...’
- ④ 한집안에 딸린 구성원. ‘그리던 ○○을(를) 만나나 볼까.’
- ⑥ 죽은 사람의 이름을 써 놓은 나무패. ‘조상의 ○○을(를) 모신 사당’
- ⑧ 다른 나라의 아주 먼 곳. ‘○○○○ 타국 땅에 남겨 둔 건 눈물이라.’
- ⑩ 전통적으로 치르는 혼례식인 초례 때 베풀어 놓는 큰상.
- ⑪ 송진이 많이 영긴, 소나무의 가지나 옹이인 관솔에 붙인 불.
- ⑬ 전쟁, 경기 등의 형세나 형편.
- ⑭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하던 일.
- ⑮ 남의 집 대문간에 붙어 있는 방인 행랑에 살면서 대가로 그 집의 심부름이나 굶은일을 해 주는 나이 든 남자 하인

- ④ 왕실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온다.
- ⑤ 힘든 공사를 견디기 위해 노래라도 하고 싶다.

4. 신혼 첫날밤, 희순과 제원이 잠을 자던 신방에 불이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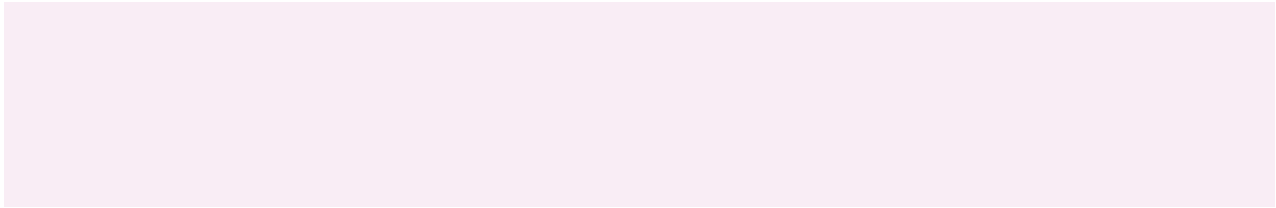
()

5.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희순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45~46쪽)

“지금 이 시국에 어찌 전쟁이 전쟁터에서만 이루어지겠느냐. 총을 들고 왜놈들과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분명 이곳에서도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희순은 외당의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깊이 새겼다.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다. 그래,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찾아 보자.’



6. 희순이 지은 의병가가 마을 전체에 널리 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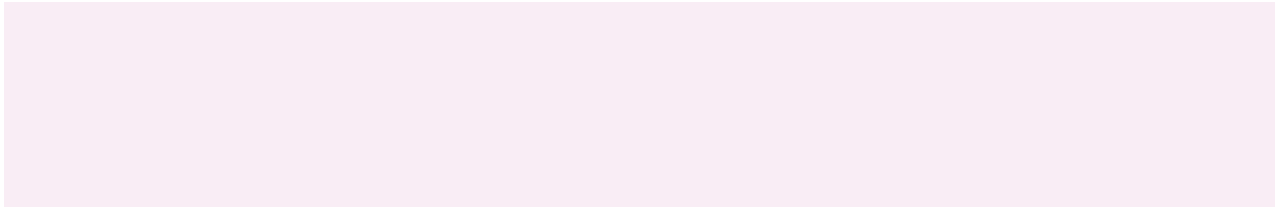
“외당덕 며느리 말이오, 실성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아니, 노래 부르는 게 어때서 그러오?”

“노랫말 못 들었소? 왜놈들이 들으면 죽을 소리뿐이니 그러지요. 이제는 아이들은 물론이고 젊은 청년이며 새댁들까지 온통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왜놈들 귀에 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날까 싶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려.”

친척 어른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희순이 지은 <안사람 의병가 노래>는 곧 항골 전체에 퍼져 나갔다.

“만세 만세 만만세요 우리 의병 만세로다.”



7. 다음 내용을 읽고 희순과 최골댁에 대해 **잘못** 유추한 것을 고르세요. ………() (60쪽)

두 사내는 밤손님처럼 어둠을 틈타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발을 재게 놀려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는 동이 막 틀 무렵이었다. 사내들은 그제야 안심한 듯 발걸음을 늦추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산등성이 너머로 봉긋 솟아오른 햇살에 사내들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났다. 한 사람은 사내처럼 상투를 틀어 올린 희순이었다. 희순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자네, 전에는 안사람의 도리가 어찌고 하지 않았던가. 사내처럼 꾸미고 다니는 게 안사람의 도리가 아닐 텐데?”

“성남도 참, 나라 지키는 일에 안사람 바깥사람이 따로 있소?”

최골댁이 패랭이를 벗으며 대차게 받아쳤다. 두 사람은 소리 죽여 함께 웃었다.

① 갑진 : 희순과 최골댁은 사내처럼 꾸미는 게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 ② 을미 : 희순과 최골댁은 동이 트기 전에 산길로 접어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 ③ 병찬 : 최골댁은 전에 희순에게 안사람의 도리에 대해 말했을 거야.
- ④ 정우 : 희순은 최골댁에게 바깥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을 거야.
- ⑤ 무열 : 희순과 최골댁이 사내처럼 꾸미고 다니는 이유는 나라 지키는 일과 관련이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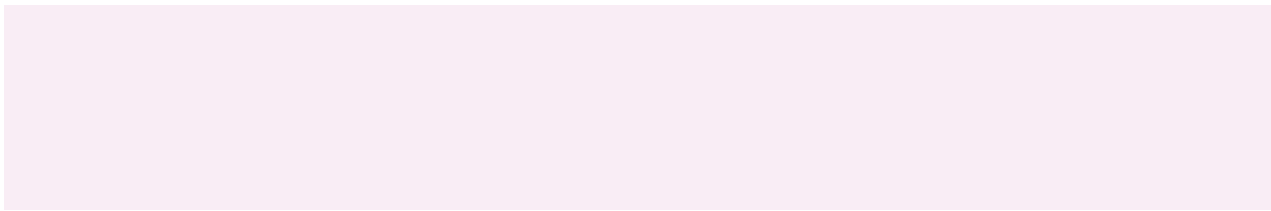
8. 돈상이 일제 순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73쪽)

마당에 들어선 순간, 희순은 심장이 땅속 깊은 곳으로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희순의 큰아들 돈상이 무지막지한 일제 순사의 손에 멍살을 잡힌 채 벌벌 떨고 있었다.

“네 할아버지 유흥석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말해!”

“으, 으으…….”

돈상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었다. 하지만 아픔과 두려움에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앙다문 입술 사이로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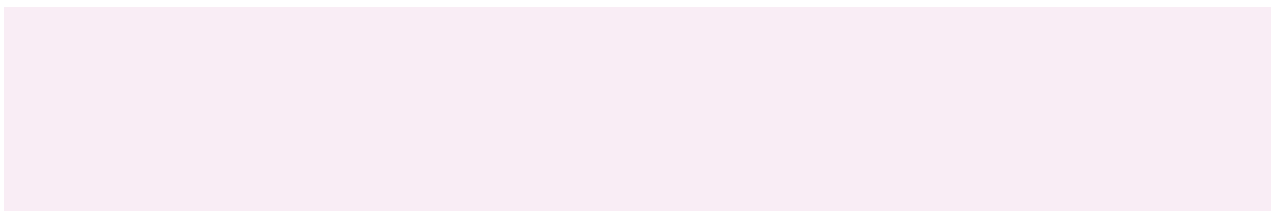
9. 희순은 왜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중국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80~81쪽)

난천자의 중국 사람들은 밭농사만 지을 뿐 벼농사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희순과 의병 가족들이 모내기하는 것을 신기하게 구경하고는 했다. 희순은 처음에는 중국 말을 한마디도 할 줄 몰랐지만, 손짓 발짓을 해가며 그들에게 벼농사 짓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아이고, 나는 농사일만으로도 힘이 다 빠지는데. 성님은 어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벼농사 짓는 걸 가르치느라고 고생을 사서 한대요.”

“모르는 소리. 우리가 앞으로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저 사람들 도움이 꼭 필요하네. 일본에 맞서려면 반드시 중국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해.”

희순의 노력 덕분에 난천자에 자리 잡은 의병 가족들은 그곳에 원래 살던 중국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희순의 중국어 실력도 날이 갈수록 쑥쑥 늘었다.



10. 희순이 독립운동가를 키우기 위해 세운 학교 이름은 무엇인가요? (87~88쪽)

○○○은(는) 일본과 맞서 싸울 조선 청년들을 길러 내기 위해 희순이 환인현에 세운 학교였다.

“경도야, 종수야 그리고 정현아. 우리 ○○○의 정신이 무엇이냐?”

“항일과 애국. 그것은 우리 학교가 일본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을 힘을 기르기 위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분발과 향상. 지금은 비록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는 늘 분발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11. 다음 본문과 사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98~99쪽)

1919년, 희순의 나이도 어느덧 예순에 접어들었다. ... 어느 날, 맏아들 돈상이 잔뜩 흥분해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다.

“어머니! 조선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조선 방곡곡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들릴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역사] 1919년, 곧 기미년 3월 1일에 한국이 일본의 강제적인 식민지 정책으로부터 자주독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민족 독립운동. 제1차 세계 대전 후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손병희 등 33인이 주동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

12. 희순이 젊은이들보다 산길을 잘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11쪽)

“이 댁 며느님이 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나부터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내 집안부터 솔선수범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온 가족이 독립군이 된 거라고요.”

“밤이 되면 이 마을에서는 총소리가 요란한데, 바로 할머니네 가족 부대가 산속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 할머니가 백발을 휘날리면서 총을 들고 산길을 뛰어다니는데 웬만한 젊은이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라고요.”

()

13. 다음 밑줄 친 내용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121~122쪽)

마침내 문이 열리고 간수들 손에 이끌려 돈상이 나왔다. 얼마나 참혹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온몸은 피투성이였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두 발로 걷기는커녕 혼자 힘으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아들을 희순은 얼른 품에 안았다. 돈상의 약한 숨소리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금방이라도 꺼져 버릴 것 같았다.**

()

14. 다음 내용을 읽고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128쪽)

1895년 일본 사람이 조선 궁궐에서 조선의 왕비를 해친 (A) 이후 최초의 항일 의병인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1905년 일본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으려고 하자 을사의병이 일어났어요. 1907년 6월,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B)에 몰래 특사를 보내서 조선에 쳐들어오려는 일본의 만행을 폭로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특사는 참석을 거부당했고, 일본은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에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했어요. 사실상 일본이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이었지요. 군대가 해산하자 군인들은 각지에서 의병에 합류해 정미의병이 일어났어요. 이후 일본이 의병을 막으려고 일으킨 남한 대토벌 작전 때문에 의병 활동은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1910년 (C) 시작 이후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보기]

을미사변 / 강화도 조약 / 민족 자결주의 / 한일 신협약 / 조선독립단 / 대한민국 임시 정부
2·8 독립 선언 / 일제 강점기 / 을사조약 / 만국 평화 회의 / 을사오적 / 단발령

(A : B :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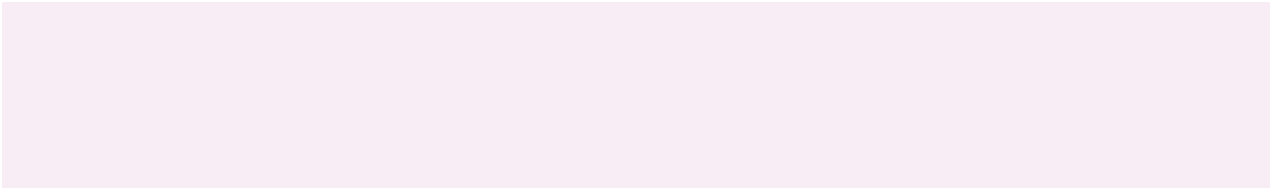
독서단원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독서 토의·토론)
-독서 후

글 : 이진미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_____
 학년 반 번 _____
 이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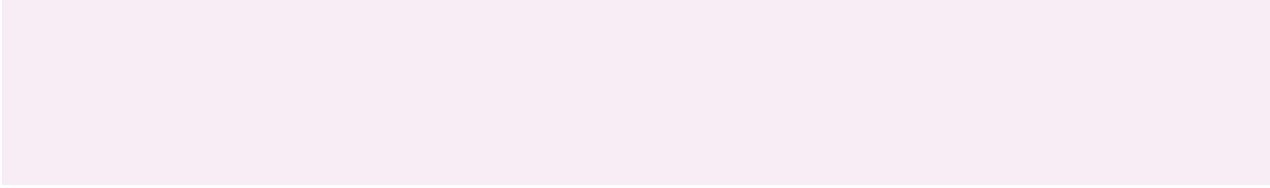
1. 외당의 말처럼 노래를 부르면 지치고 힘든 마음이 달래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 또는 슬프거나 화날 때 나를 위로해 준 노래가 있나요? 나와 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에게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고 싶나요? 언제 어떤 노래를 들으며 힘이 났는지 노래 가사를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네 말이 옳다. 그리고 보니 노래는 아주 힘이 세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래는 못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뜻이란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지치고 힘든 마음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게지.” (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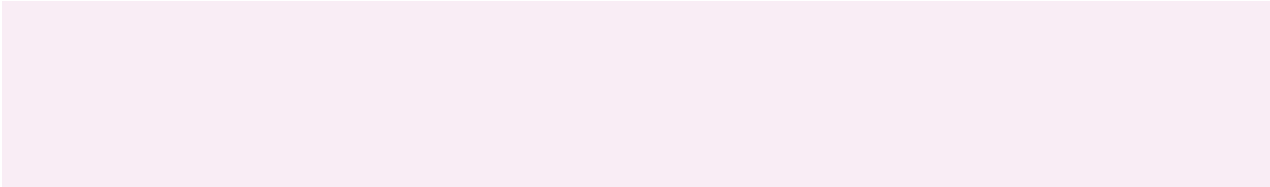
2. 사람들은 자신보다 작고, 어리고, 약한 사람을 보면 어렵거나 힘든 일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장부 희순처럼 제몫을 잘해 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보았거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된 적이 있었는지 경험과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아가, 위험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저쪽 보리밭으로 몸을 피하거라.”
 남편 제원도 나섰다.
 “그러세요, 부인. 불 끄는 건 남자들이 하겠소.”
 하지만 희순은 발끈했다.
 “불길이 더 거세지기 전에 잡아야지요. 한시가 급한 마당에 남자, 여자 가릴 틈이 어디 있어요. 손 하나라도 더 보태야지요.” (34쪽)



3. 많은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힘썼어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무순감옥은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잡아가 끔찍한 고문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무순감옥에서 참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들도 여럿이었다. 그런 곳으로 아들 돈상이 끌려간 뒤로 희순은 하루하루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날을 보내고 있었다. (119쪽)





독서단원
-정답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독서 퀴즈)

글 : 이진미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_____

인물 관계도

낱말 퍼즐

- 1. (외당) 유희석
- 2. 유제원
- 3. 유돈상

①토		③출	④가				⑦패	랭	⑧이
②역	사		속		⑤갓	⑥신			역
소						주			만
			⑩관	복			⑨족	두	리
⑩초	롱		솔						
레			불		⑭독				⑯행
상					립			⑮사	랑
			⑬전		운				아
⑫남	녀	칠	세	부	동	석			범

독서 퀴즈

- 1.
 - ① - ㉠ 돈상이 태어나다.
 - ② - ㉡ 희순이 <안사람 의병가 노래>를 짓다
 - ③ - ㉢ 희순이 학교를 짓다.
 - ④ - ㉣ 희순이 자손들에게 글을 남기다.
- 2. 어디선가 나타난 강아지의 꼬리가 도령의 다리에 스쳐 도령이 놀라 날뛰었기 때문에
- 3. ④
- 4. 신랑 신부의 첫날밤을 훔쳐보기 위해 신방 앞에 모인 사람들(동네 아낙들)이 들고 있던 관솔불이 처마 끝에 닿았기 때문에
- 5. 일본에 맞서기 위해 조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의병을 도울 방법이 있다. / 조선의 집안을 지키고 조선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다. 등
- 6. 힘든 사람들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 일제에 직접 맞서는 것은 무섭지만 노래를 불러 조선 사람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아서 / 여러 사람들과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등
- 7. ④
- 8. 독립운동을 하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 조선 사람으로서 일제의 압박에 지고 싶지 않아서 / 독립운동을 하며 마음을 굳게 다진 어머니와 가족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 9. 함께 일제에 맞서 줄 수 있는 이웃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려면 중국 말을 잘해야 하는데 중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중국 말을 배울 수 있어서 / 식량이나 머물 곳 또는 정보 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등
- 10. 노학당
- 11. 3·1 운동(삼일 운동)
- 12. 오랜 세월 동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산속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 13. 풍전등화(풍전등축, 풍전촉화 등)
- 14. A : 을미사변 / B : 만국 평화 회의 / C : 일제 강점기